



전투가 심화되면서 호데이다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 옥스팜

고통받는 예멘의 평화를 위해

호데이다(Hudaydah) 지역의 도시와 항구를 향한 공격이 확산되면서 민간인들의 안전은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

호데이다 주민들은 이미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예멘 내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항구와 도시를 향하던 군의 진격이 일시적으로 멈췄고, 최근 들어 전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주민들은 급격히 악화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다. 게다가 상수도관이 파괴되어 전 지역에서 물을 구할 수 없고, 콜레라가 또 한번 도시를 휩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우유, 기름, 마가린, 곡물을 공급하던 수십 개의 상점은 문을 닫았다.

타이즈(Taiz, 예멘 남부 도시)에서 벌어졌던 시가전이 호데이다에서 재현될까 두려움에 떠는 수천 명의 주민은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 전쟁에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가 협상을 거부하는 동안 예멘의 민간인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전적으로 평화를 지지하는 방법을 선택해 예멘의 위기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www.oxfam.or.kr

www.oxfam.org



OXFAM

호데이다를 향한 공격이 도시와 항구로 가까워지고 있다.

항구와 도시로 향하던 군의 이동이 멈춰 섰다고 보고됐지만¹, 강도만 줄었을 뿐 전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사우디와 UAE(아랍에미리트 연합국)가 주도하는 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은 도심 공항을 점령한 후 호데이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군은 부대를 항구와 호데이다 외곽 근처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후티 반군(Houthis)도 정부 연합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참호와 지뢰를 설치하고,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병력을 배치하여 저항하고 있다고 알려졌다.²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공항에서부터 수산 시장이 있는 항구나 시내 대학으로 가는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전투가 보도됐다. 간간이 포격과 공습도 보도되고 있고, 민간인의 도로 통행이 (주로 도시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 호데이다 내에 있는 정부 연합군은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군 장비를 지원받아, 후티 반군의 거점 지역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³

피란 행렬도 끊이지 않는다. 임박한 공격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안전을 찾아 호데이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고 있다.⁴ 여러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은 호데이다를 빠져나가기 위해 평상시 2시간이면 가는 길을 산과 골짜기를 넘는 위험천만한 경로를 통해 이들을 걸려 가고 있다. 특히, 가는 길목에 설치된 지뢰는 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에게 매우 위험하다.⁵ 얼마나 많은 실향민이 발생했는지 전체적인 수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6,000가구가 집을 떠났다.⁶ 민간인 사상자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군의 공습이 호데이다에서 피난민을 태운 버스를 타격했다는 보고도 있었다.⁷

호데이다는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로 예멘 내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행정 구역 중 한 곳이다. 작년에는 기아를 가까스로 면했지만⁸, 여전히 식량 위기의 재난 상황을 겪고 있다.⁹ 호데이다 행정구 내 25%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¹⁰ 만약 구호 단체의 지원이 중단되면 즉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이 약 10만 명이다.¹¹ 게다가 호데이다는 지난해 콜레라 사태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현장의 사람들과 목격자들이 옥스팜에 전한 정보에 따르면 호데이다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이며, 민간인들은 임박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가까워서 전투 소리를 듣기는 처음입니다. 폭탄 소리와 사격 소리가 매우 가까워서 들립니다.” - 최근 전투가 일어난 아민 모크벨(Amin Mokbel) 지역 출신 주민

지상전 준비가 시민 안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후티 반군은 호데이다 내 항구 진입로 등 많은 길목을 모래주머니로 막고 있으며, 시가전을 준비하며 참호를 짓는 것으로 보고됐다. 몇몇 지역에서는 물 공급이 끊겼는데 참호를 팔 때 수도관과 하수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후티 반군은 저격수 배치, 추가 검문소 설치, 민간 주거지역 내 은신, 공공시설 점령, 민간 시설 내 은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움직임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 시가전 준비가 진행되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차량의 이동을 거의 볼 수 없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도 거의 운행되지 않으며, 주유소는 하루에 일정 시간 만 열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

호데이다 거주자인 야세르 (Yasser)는 "전투가 타이즈(Taiz)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시가전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그의 두려움은 호데이다가 타이즈(Taiz)의 사례처럼 최악의 경우 도시 전체가 군대에 포위되는 상황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시가전이 계속되고 기상 공습이 가해지면 도시에 갇힌 60 만 명의 시민이 인간 방패로 사용되거나 십자포화를 당할 수 있다.

과거 아덴 (Aden)의 시가전 사례를 비추어보면 UAE 가 도시를 장악하는 데 두 달이 걸렸고¹³,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 기반 시설 파괴됐고, 공공서비스가 중단됐다. 이 모든 정황은 호데이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위험성과 이런 위험으로부터 민간인 보호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고조되는 현 상황의 인도주의적 영향

늘어나는 피난

두려움을 피해 피란 길에 오르는 인구가 줄을 잇고 있다. 피란민 대부분은 전투 발생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군대의 확전을 우려해서 마을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공식적인 실항민의 수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들은 거주 구역 내에서 이주하거나 혹은 하이자(Hajja), 사나(Sana'a), 다마르(Dhamar), 이브(Ibb) 등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자가 차량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대중교통을 타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대중교통의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서, 비싸진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6 명의 가족이 수도 사나 (Sana'a) 또는 타이즈 (Taiz) 시로 가려면 150 달러가 필요하고, 호데이다 내의 타 지역으로 피난하려면 70 달러가 든다¹⁴. 가까스로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사람들은 거주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숙박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집주인들이 가격을 비싸게 올려서 비싼 숙박료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 한 가족이 사나에서 숙소를 빌려 숙식을 해결하려면 매월 500 달러가 필요하다.¹⁵ 도시 내 실항민들은 학교로 피신하고 있다. 실항민들은 인도주의 구호 단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도로가 폐쇄되거나 전투가 벌어지며 구호 물류 창고로 접근이 어려워져 구호 물품을 도시로 들여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투하야타(Al Tuhayata), 두라히미(Al Durayhimi) 및 가라히(Al Garrahi)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며 이 지역 내 실항민(IDP)과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¹⁶

호데이다 거주자인 오마르 (Omar)는 “자가용과 버스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다. 가스통이나 식료품을 들고 가는 피난민들을 종종 목격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



폭격으로 피난길에 오른 아흐메드 가족/ 사진: 옥스팜

아흐메드 (Ahmed, 30 세)는 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며 야자 농장에서 일했었다. 아흐메드의 가족을 포함한 5 가족은 정부군과 후티 반군의 전투가 마을 가까이 다가오자 호데이다를 탈출했다. 격렬한 전투 중에 발포된 폭탄 파편이 그의 집을 타격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다.

아흐메드의 가족은 10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모래폭풍을 건다가 바이트 알 파키(Bait Al-Faqih) 구역의 외곽 마을에서 안전을 찾았다. 마을에 도착해서는 인도주의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다행히 그의 가족들은 겨우 안전을 되찾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오는 길에 지뢰 때문에 죽기도 한다고 아흐메드는 전했다.

콜레라의 치명적인 위협

호데이다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고, 최근에는 상수도관이 파손돼서 물 부족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주변 전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¹⁷ 실항민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몇몇 지역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가 보고됐다.

호데이다 남부와 서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상수도가 손상돼서 물을 찾아 집을 떠나고 있다.

사설 병원의 간호사인 힌드(Hind)의 가족은 물 없이 5일을 버텼는데, 수도관이 수리될 희망이 보이지 않아 가족들과 집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다.

호데이다는 역대 최악의 사례로 꼽히는 작년 콜레라 발생 근원지 중 한 곳이다.¹⁸ 단지 한 지역의 상수도관에서 문제가 생겨도 콜레라가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 최근 참호를 파며 손상된 곳을 즉시 수리하지 못해서 상수도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하 수도관 수리를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한다.

공장과 가게가 문을 닫고 시장이 무너지다.

호데이다에서 전투가 지속되면서 무크타르(Ai Mukhtar) 병원을 포함한 상업, 공공시설이 파괴되었다.

수십 개의 공장과 상업 시설들이 인근에서 벌어지는 전투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거나, 혹은 근로자들이 일하러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생산을 중단했다. 중요한 점은 소규모 상점뿐 아니라 대규모의 공급업체도 문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문을 닫은 공장들은 마가린, 우유, 기름, 곡물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 등의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전투 현장 근처에 있는 일부 공장들은 물건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할 것을 우려해 물건을 모두 트럭에 옮겨 싣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한다. 도심 대부분의 상점과 쇼핑몰 역시 약탈에 대한 염려와 위험성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일부 상점은 하루에 몇 시간만 문을 열기도 하는데 종일 문을 여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많지 않은 재고로 가능한 오래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상인들과 무역상 역시 호데이다를 떠나면서 주민들은 시장에서 식량과 필수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⁹

주유소는 차들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길가에 차량의 행렬이 늘어서 있고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주유할 기름을 구하려고 나섰다. 암시장에서도 연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투가 확산되고 시가전이 장기화할 것을 예상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사재기하여 비축하고 있다. 일부 양식의 가축을 느끼지 못하는 무역상은 아직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료를 쌓아 두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데이다 항구는 아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²⁰ 혼잡한 확인 절차와 빈번한 지연은 상품을 항구로 들여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²¹ 호데이다는 2000만 명의 예민 사람을 기근과 콜레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식량과 기본적인 공급품을 들여오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항만에 공격이 가해지거나 운행 중단이

발생하면 통로는 막힐 것이다. 이는 호데이다 주민의 생명줄을 끊을 뿐 아니라, 이미 굶주림 위기 직전에 처한 840만 예멘인 모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다.²²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전쟁 범죄로 여겨질 만한 일이다.

필수품의 부족과 치솟는 식료품 가격

아직까지는 호데이다 내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의 이동이 가능하다. 도심 내 이동이 가능하며, 문을 여는 상점과 식당이 있다. 하지만 서부와 동부 지역은 텅 빈 채로 버려졌다. 상점, 제과점, 식당은 문을 닫았고²³ 시장에 물건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엔 식량안보농업프로그램(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Cluster)에 따르면 시장의 밀가루, 식용유, 요리용 가스 등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실정이다. 6월 24일 기준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밀과 식용유 가격은 30%, 요리용 가스의 가격은 52%가 올랐다.²⁴ 옥스팜이 입수한 현지 제보에서도 비슷한 가격 상승이 보고됐는데, 밀가루 50kg의 가격이 24%나 올랐다 (표 1 참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물건을 사느라 정신이 없고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비축하고 있다. 송금을 받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던 환전소마저 폐쇄되었다. 현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치솟으며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²⁵

무역상은 소매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3년간 전쟁을 겪은 대부분의 예멘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기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데이다로 전투가 확산되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수많은 예멘의 취약 계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소매 거래상은 도매 무역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들이 탐욕스럽게 소매업자들에게 비싼 값에 물건을 팔고 있어서, 자기와 같은 소매업자들은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매 거래업자는 대부분의 도매업자가 라마단 기간 전에 물건을 모두 사들였고, 위기를 이용해 물가를 올리고 있다며 분노했다.

표 1: 선정된 주요 식료품의 물가인상

식료품 항목	5월 가격 (예멘화페 rial)	현재 가격 (예멘화페 rial)	상승 가격 (예멘화페 rial)
밀가루, 50kg	9,600	11,900	2,300
쌀, 50kg	28,000	38,700	10,700
설탕, 50kg	10,300	13,250	2,950
밀, 50kg	8,000	12,000	4,000
식용유, 9L	4,500	6,300	1,800
베이비우유, 5kg	9,150	10,900	1,750

출처: 현지에서 옥스팜 제보원이 수집한 정보(2018년 6월 21일 기준)

/ 예멘 rial 1 = 0.0040 USD (2018년 6월 3일 기준)

성과가 없는 평화외교

유엔 예멘 특사(UN Special Envoy for Yemen)인 마틴 그리피스 (Martin Griffiths)는 정치적 방법인 평화외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EU 외무부 대표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와 EU 외무 장관을 만났고, 후티 반군과 예멘 하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사나와 아덴²⁶을 방문했다. 그는 호데이다 항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정치적 협의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제안한 평화 협상과 평화회담 재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⁷

연합군은 진격을 중단하고 도시와 항구를 향한 본격적인 군 확전을 잠시 멈춘다고 발표했지만²⁸, 전투가 계속되며 호데이다 주민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전쟁을 어떻게든 멈추면 좋은 일이지만 호데이다와 예멘 모든 지역에서 영구적인 휴전이 이뤄지는 것을 대신할 길은 없다. 전쟁 관련 당사자들의 정치적 입장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고, 연합군은 항구와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의 조건 없는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유엔에 항구 관리를 위임할 의향을 밝혔으나, 호데이다에서 철수하거나 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에 관련된 주체들이 협상을 거부하며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를 떠안는 것은 바로 예멘의 민간인 주민들이다.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정치적 협상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쟁으로 3년을 시달린 예멘인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호데이다 항구에 추가적인 군사 공격으로 생기는 위험성과 인명 피해는 막심할 것이며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예멘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권고사항

UN과 회원국에 대한 권고: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와 연합군의 국제 동맹국들은 공격이 호데이다나 항구로 향하기 전에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후티 반군과 연합군을 포함한 예멘의 모든 무장세력의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
- 모든 관련국 정부는 예멘 전투 참전 주체에게 무기 이송을 즉각 중단하고, 무기가 심각한 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국제 인권, 인도주의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추가적인 무기 이송 허가를 금해야 한다.
- 유엔과 회원국은 전쟁 당사자인 후티 반군, 예멘 정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하는 연합군과 기타 무장 세력들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고,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전쟁의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분쟁 지역으로부터 안전을 찾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UN 과 후원국 정부는 호데이다에서 치명적인 콜레라의 창궐을 막기 위해 급수와 하수도관 복구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 사회는 포괄적인 평화 절차를 지지하여 예멘의 여성, 청소년, 시민 사회와 연계하고,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반영해야 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 사회는 호데이다 항구와 살레프 항구(Saleef ports)가 완벽히 가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요 경로를 개방해서 식품, 연료, 의약품 및 기타 필수용품이 예멘 모든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우디와 아랍 에미리트가 주도하는 연합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기구들은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호데이다 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 총체적으로 위 권고 사항의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연합군과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 협력국은 3년이 넘도록 예멘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안보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공개조사에 임해야 한다.

후티 반군, 예멘 정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권고:

- 호데이다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전쟁과 폭력을 중단하고 휴전 합의에 동의하여야 한다. 예멘 여성, 청소년,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절차를 걸치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고통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

국제법을 존중하고 전쟁 규정을 지켜야 한다.

- 민간인, 여성,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 학교, 병원, 민가 같은 민간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
- 전쟁에서 대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식량, 식수 및 의료용품 등의 필수적인 인도주의 구호품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구호품 전달을 가로막는 관료적 난관이나 다른 형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 민간인이 인도주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군이 민간 시설로 피신하거나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민간인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민간인에게 끼치는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호데이다의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 주요 기반 시설에는 물, 하수 및 전기 망을 포함된다.
- 도로, 교량, 기타 민간 인프라 시설 등 민간인들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하고 인도주의 물품을 자유롭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예멘의 생명선인 호데이다 항구를 보호해야 한다.

- 호데이다 항구가 파괴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하며, 식량, 연료 및 기타 필수적인 물품 등이 인도주의적 혹은 상업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 항구 시설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NOTES

- ¹ Anwar Gargash, Foreign Minister, UAE. 1 July 2017. <https://twitter.com/anwargargash?lang=en>
- ² Independent. (30 June 2018). *Battle for Hodaydah: Fears Grow for Yemeni Civilians As Negotiations Between the Coalition and Houthi's falter*.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yemen-Hodaydahh-latest-saudi-arabia-uae-coalition-airstrikes-houthis-a8421651.html>
- ³ The New Arab. (22 June 2018). *Army reinforcements roll in to Yemen's embattled Hodaydah*. <https://www.alaraby.co.uk/english/news/2018/6/22/army-reinforcements-roll-into-yemens-embattled-Hodaydahh>
- ⁴ OCHA. (24 June 2018). *YEMEN: Al Ho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5*.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180624_AI%20Hodayday_Update_Issue_5_v3.pdf
- ⁵ Paton Walsh, Nick. (27 June 2018). *As fighting edges closer to Hodaydah, the biggest losers are Yemeni civilians*. <https://edition.cnn.com/2018/06/27/middleeast/yemen-Hodaydahh-port-intl/index.html>
- ⁶ OCHA. (27 June 2018). *YEMEN: Al Ho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6*.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180627_AI%20Hodayday%20Update_Issue%206.pdf
- ⁷ Middle East Eye. (26 June 2018). *Saudi-led coalition airstrike kills nine civilians fleeing Hodaydah: Reports*. <http://www.middleeasteye.net/news/yemen-war-saudi-bombing-campaign-kills-nine-civilians-fleeing-Hodaydah-1317089302>; and OCHA. (27 June 2018). *YEMEN: Al Ho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6*. Ibid.
- ⁸ FAO. (2017). *IPC Map of Yemen – March-July 2017*. <http://www.fao.org/emergencies/resources/maps/detail/en/c/847475/>
- ⁹ FEWS NET. (April 2018). *Yemen Food Security Outlook Update*.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YEMEN_Food_Security_Outlook_Update_April2018_0.pdf
- ¹⁰ WFP (15 March 2017). *Yemen Needs Urgent Food Assistance to Prevent Famine*. <https://reliefweb.int/report/yemen/yemen-needs-urgent-assistance-prevent-famine>; and WHO, *Situation Report # 1. 17 June – 23 June 2018*.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WHO_Sitrep_AI_Hodaydah_no.1_24.06.2018_Cleared_.pdf
- ¹¹ OCHA. (21 June 2018).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in Hodaydah are at grave risk*. <https://reliefweb.int/report/yemen/hundreds-thousands-civilians-Hodaydahh-are-grave-risk-enar>
- ¹² Middle East Eye (28 June 2018). *In Yemen's Hodaydah, Houthis dig in for protracted street fighting*. <http://www.middleeasteye.net/news/yemen-s-Hodaydahh-houthis-dig-protracted-street-fighting-1450540011>; and Human Rights Watch. (15 June 2018). *Yemen: Key Concerns for Hodaydah Battle*. <https://www.hrw.org/news/2018/06/15/yemen-key-concerns-Hodaydah-battle>
- ¹³ Al Jazeera Report. (8 April 2015). *Yemen's Houthis Battle in Central Aden, First Medical Aid Arrives*. <https://uk.reuters.com/article/us-yemen-security/yemens-houthis-battle-in-central-aden-first-medical-aid-arrives-idUKKBN0MY1TL20150408>
- ¹⁴ Oxfam source in Hodaydah.
- ¹⁵ Oxfam source in Hodaydah.
- ¹⁶ OCHA. (22 June 2018). *YEMEN: Al Ho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4*.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180621_AI_Hodayday_Update_Issue_4_v4.pdf
- ¹⁷ Neighbourhoods affected by the cuts to the water and sewage system include Al Shuhada, Al Salakhana in Hali district and the neighbourhoods of Rabssa and Galil in Hawk district.
- ¹⁸ Alles, Larissa. (16 August 2017). *Yemen. Catastrophic Cholera Crisis*. <https://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yemen-catastrophic-cholera-crisis-620328>
- ¹⁹ Oxfam source in Hodaydah.
- ²⁰ OCHA. (24 June 2018). *YEMEN: Al Ho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5*. Op. cit.
- ²¹ Alles, Larissa. (20 December 2017). *Missiles and Food: Yemen's man-made food security crisis*. <https://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missiles-and-food-yemens-man-made-food-security-crisis-620388>
- ²² Mark Lowcock, Under Secretary General OCHA Statement, (24 May 2018): <https://reliefweb.int/report/yemen/under->

²³ OCHA. (27 June 2018). *YEMEN: Al Hu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6*. Op. cit.

²⁴ 24 OCHA. (24 June 2018). *YEMEN: Al Hu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5*. Op. cit.

²⁵ OCHA. (27 June 2018). *YEMEN: Al Hudaydah Update. Situation Report No. 6*. Op. cit.

²⁶ New York Times, (1 July 2018), *In Yemen, A Pause In the Fighting Raises Hopes For Peace Talks*: <https://www.nytimes.com/2018/07/01/world/middleeast/yemen-al-hudaydah-united-arab-emirates.html>

²⁷ Strobel, Warren et al. (7 June 2018). *Yemen Peace Plan sees ceasefire, Houthis abandoning missiles*: <https://uk.reuters.com/article/uk-un-yemen-exclusive/exclusive-yemen-peace-plan-sees-ceasefire-houthis-abandoning-missiles-idUKKCN1J22YY>

²⁸ Alyemany, Khaled Hussein. (27 June 2018). *Statement after the meeting of President Hadi and the UN Special Envoy for Yemen.* https://twitter.com/YemenEmbassy_DC/status/1012006530856693760

© Oxfam International July 2018

This paper was written by Sultana Begum. Oxfam acknowledges the assistance of Dina El Mamoun in its production. It is part of a series of papers written to inform public debate on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policy issue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issues raised in this paper please email advocacy@oxfaminternational.org

This publication is copyright but the text may be used free of charge for the purposes of advocacy, campaigning, education, and research, provided that the source is acknowledged in full. The copyright holder requests that all such use be registered with them for impact assessment purposes. For copying in any other circumstances, or for re-use in other publications, or for translation or adaptation, permission must be secured and a fee may be charged. Email policyandpractice@oxfam.org.uk.

The information in this publication is correct at the time of going to press.

Published by Oxfam GB for Oxfam International under

ISBN 978-1-78748-297-5 in July 2018.

DOI: 10.21201/2018.2975

Oxfam GB, Oxfam House, John Smith Drive, Cowley, Oxford, OX4 2JY, UK.

OXFAM

Oxfam is an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20 organizations networked together in more than 90 countries, as part of a global movement for change, to build a future free from the injustice of poverty. Please write to any of the agencies for further information, or visit www.oxfam.org

Oxfam America (www.oxfamamerica.org)

Oxfam Australia (www.oxfam.org.au)

Oxfam-in-Belgium (www.oxfamsol.be)

Oxfam Brasil (www.oxfam.org.br)

Oxfam Canada (www.oxfam.ca)

Oxfam France (www.oxfamfrance.org)

Oxfam Germany (www.oxfam.de)

Oxfam GB (www.oxfam.org.uk)

Oxfam Hong Kong (www.oxfam.org.hk)

Oxfam IBIS (Denmark) (<http://oxfamibis.dk/>)

Oxfam India (www.oxfamindia.org)

Oxfam Intermón (Spain) (www.oxfamintermon.org)

Oxfam Ireland (www.oxfamireland.org)

Oxfam Italy (www.oxfamitalia.org)

Oxfam Japan (www.oxfam.jp)

Oxfam Mexico (www.oxfammexico.org)

Oxfam New Zealand (www.oxfam.org.nz)

Oxfam Novib (Netherlands) (www.oxfamnovib.nl)

Oxfam Québec (www.oxfam.qc.ca)

Oxfam South Africa (www.oxfam.org.za)